

개성 영통사성지순례 정례화 여부 '불투명'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성지 정기순례가 난관에 봉착했다. 천태종은 7월 26일 본격적인 개성 영통사 정기성지순례를 앞두고 순례단을 모집 중이다. 하지만 통일부의 월1회 제한을 풀지 못할 경우 북한과 '주 2~3회 방문'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돼 앞으로 정기순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7월 17일 "통일부가 주 2~3회 실시를 기본으로 한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성지순례(안)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월 1회 실시한다고 확정 한 뒤 언론에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통일부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불교도들이 힘을 한데 모아 성지순례가 원만성취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지면안내

- 종합 / 현존 가장 '보현인경' 발견... ③
- 특집 / (백암) 원역기념 특강 중계... ④
- 기획좌담 / 인성교육 불교에 답 있다... ⑫

여름특집색션

올 여름 이 절엔 꼭 가보세요... ⑫
 오솔길 끝에서 만난 작은 절집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책!책!... ⑭
 본지 논설위원이 추천한 불서 8권

올 여름 꼭 보고싶은 전시... ⑮
 스누피 라이프 디자인展

바다에서 찾는 깨달음의 길... ⑯
 파도소리 들으며 듣는 성통 깨달음의 법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체조/선요가/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삼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원
02)763-2980
 중로, 서울, 영남대, 송파역



무더위 연꽃향에 날리다

7월 15일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 주변에 들어선 대단위 연꽃농장을 찾았다. 연꽃향을 따라 한가로이 연밭을 걷는 가족들의 얼굴에선 이미 무더위가 사라진 듯 하다. 관곡지(경기도 시흥시 향토유적 8호)는 조선 세조 때 농학자 강희맹이 명나라에서 연꽃씨를 들여와 최초로 씨를 뿌린 곳이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이명박씨 서울 봉헌 발언 해명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는 7월 19일 열린 검증청문회에서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서울 봉헌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봉헌은 기독교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서울 봉헌 발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4년 5월 한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 이름으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남동우 기자

“마음을 쉬다는 건 애착 버리는 것”

山寺에서 띄우는 여름 편지

지리산 국사암 입구 쌍계연지(雙鏡蓮池)에는 요즈음 연꽃이 한창입니다. 백련과 홍련이 다투듯 피어나는 통에 공양 후에는 발길 이 저절로 연못을 향하게 됩니다. 백련은 청초하게 기품이 있는 반면 홍련은 화려하게 아름답습니다. 그 향기 또한 일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잎 위의 초롱초롱한 물방울입니다. 새벽이슬이 맺혀 이루어진 물방울들이 커다란 연잎 위에서 또르르 굴러다닙니다. 툭 치면 치는 대로 빙글빙글 돌며 구릅니다. 재미있어 자꾸만 쳐보게 됩니다. 툭! 때구르르... 툭! 때구르르...

원앙에 착 달라붙지 않고 흐드는 대로 굴러다니는 물방울을 보면서 마음을 쉬다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애착하는 마음을 쉬는 것이고, 애착하지 않으므로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연(緣) 따라 둥글둥글 돌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계(逆境界)는 역경계대로 순경계(順境界)는 순경계대로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쉬는 것이 곧 깨달음(歇即菩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다는 것은 몸뚱이에 대한 애착을 쉬는 것입니다. 몸뚱이 착(著)이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 몸뚱이'가 있다고 해서 몸뚱이 착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뚱이 착이 쉬어야 몸뚱이가 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평생 이 몸뚱이가 '나'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

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심지어 해골에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세존께서 가바(耆婆)와 함께 무덤사이를 지나시다가 다섯 개의 해골을 보시고 그 중 한 해골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디에 태어난 해골인가?" "그는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 해골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디에 태어난 것인가?" "그는 축생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하여 각각 이귀, 인간, 천상에 태어났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몇 리를 더 가서 한 해골을 보고 두드리면서 물으시기를 "이것은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시니, 기바가 태어난 곳을 알지 못하였습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라한의 해골이니까, 태어난 곳이 없느니라."

몸뚱이는 사라져도 몸뚱이 착이 남아서 윤회를 받습니다. 지옥고를 겪는 것도 천상을 즐기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존재 가운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행위'가 '나'를 결정짓습니다. 결국 매 순간을 열심히 살피, 애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연잎위의 이슬방울처럼 머무르지 않는데 있습니다. 툭! 때구르르... 툭! 때구르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밥 먹을 땀 밥 먹을 땀, 잠잘 땀 잠잘 땀, 좌선할 땀 좌선할 땀, 죽을 땀 죽을 땀!



월호 스님
 생계사 승가대학 교수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1 팩스 031387-5409
 유대문 010-7504-4521 (당동회 변호사)
 017-535-0695 (당기원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성불조각원 www.sunbul.or.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경주 보광사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